

광주시, 매주 토요일 '찾아가는 문화공연'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공연을 통해 문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당신곁에' 하반기 공연을 선보인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첫째·셋째주 토요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상마당, 남구 푸른길공원, 광산구 운남근린공원에서, 둘째·넷째주 토요일 서구 상무시민공원,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총 31회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오페라, 연극, 거리공연 등 한층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가 예정이다.

9월 첫 주 공연은 오는 6일 국립아시아

9~11월 ACC·푸른길공원·상무시민공원 등서 총 31회 진행
오페라·연극·거리공연 등 다양한 장르로 시민 일상에 활력

아문화전당(ACC) 상상마당, 푸른길공원, 운남근린공원에서 동시에 막을 올린다.

동구 ACC상상마당에서는 금관 5중주 그룹인 '금플레이'가 시민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위주로 '일몰 힐링 콘서트'를 선사한다.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악가요와 남도 민요를 선보이는 '국악콘서트' 무대를 펼친다. 광산구 운남근린공원에서 광주시립극단이 광주학생운동 당시 광주여고 독서회

'소녀회'를 모티브로 한 연극 '소녀들'을 무대에 올린다.

신신화 문화정책관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상 속 작지만 따뜻한 문화적 여유를 선사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으로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공연 '찾아가는 문화공연-당신곁에'를 운영했으며 지역 예술인 257명이 참여했다. 관객 만족도 조사(응



답자 257명)에서 97.5%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영수 기자

보성군, 대원사 '태아령 진혼예술제' 개최

"어린 영혼들이 연꽃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보성군은 오는 5일 오후 6시 대원사(주지 현장 스님)에서 '태아령 진혼예술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보성군이 지원하는 「전통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된다.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태아 영가를 위로하고 아미타불의 연꽃나라에 태어나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자리로, 생명의 소중함과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길 가름을 시작으로 살풀이춤, 명상곡 연주, 상임불 연주, 지장보살 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내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해 종교적 의례를 넘어 공감과 치유의 문화예술 축제로 펼쳐진다.

대원사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 2건(▲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대원사 극락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와 도 지정 문화유산 2건(▲대원사 극락전, ▲대원사 자전국사부도)을 보유한 천년 고찰이다.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전통산사 문화



유산 활용사업'은 2025년 3월부터 12월 까지 진행하고 있다. 티벳박물관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고찰해 보는 '어서와 저승은 처음이지?'는 연중 진행되며, 주말에는 탁본체험, 페이퍼토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매주 일요일은 '대원사 노닐기' 프로그램 통해 현장 스님으로부터 직접 대원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올림잇는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061-852-1755)와 대원사 홈페이지(<http://www.daewonsa.or.kr/>)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현장스님은 "아침저녁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고즈넉한 대원사에서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김영수 기자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이달 23일까지 '영암이 좋아요'를 주제로 제30회 월출학생종합예술제 백일장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월출학생종합예술제는 영암 청소년의 예술 감수성 함양 및 역량 발휘 기회 제공, 지역 전통문화 전파 및 애향심 고취 등을 취지로 해마다 열고 있다.

백일장에는 영암군 학교 재학생, 학교 밖청소년 모두 참가할 수 있다.

공모는 글짓기, 그리기, 영상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 글짓기는 6학년·수필·단편소설 등으로, 그리기는 그림·서예·캘리그래피로, 영상은 다큐·브이로그·뮤지비디오·숏폼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영암군과 영암군미래교육

영암 월출학생종합예술제 글·그림·영상 공모

23일까지 접수, 대상 3명 등 총 48명 시상... 월출산국화축제 때 전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응모신청서 등 서류와 함께 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 제출하면 되고, 재학생은 학교에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은 주제 명확성, 창의성, 짜임새, 구성력, 전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작을 선정한다.

대상 3명은 전라남도지사상, 최우수상 6명은 전라남도교육감상, 우수상 15명은 영암군수상, 장려상 24명은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상을 각각 시상한다. 심사 결과는 10/16일 영암군미래교육

재단과 영암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한다.

분야별 입상 작품은 월출산국화축제와 연결해 10월 말부터 영암한국드라마센터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우승회 영암군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은 "월출학생종합예술제를 영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성취를 나누며 화합하는 장으로 만들겠다. 많은 청소년들의 작품 출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은 2025년 특별기획전 '고흥 고분, 고대의 문을 열다' 개막식을 오는 9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고흥 지역에 분포한 고분에서 발굴된 1,000여 점의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고흥이 고대 한반도 남해안 해상 교류의 중심지로서 지닌 역사적 가치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2006년 포두면 안동고분과 풍양면 야막고분의 최초 발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를 종합해 장신구·무기·토기 등 다채로운 출토품을 통해 고대 고흥의 정치·문화적 위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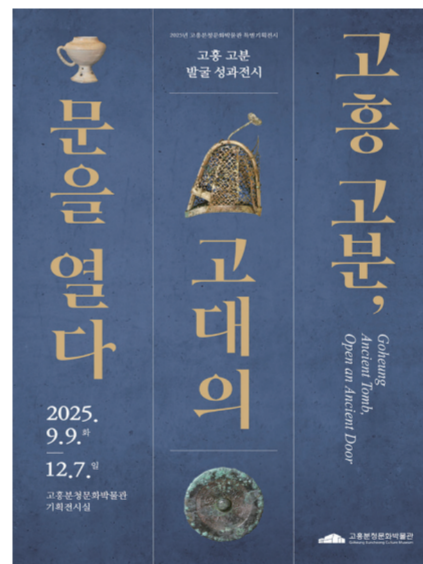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특별기획전 '고흥 고분, 고대의 문을 열다'

고흥 고분 발굴 출토 유물로 역사인식 제고와 애향심 고취

국제 교류의 흔적을 보여준다.

또한, 어렵게만 여겨졌던 고분의 학술적 성과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금동관모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전문 해설사가 진행하는 하루 4회의 정기 전시해설을 통해 고흥 고대문화의 매력을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

군 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그동안 박물관에서는 고흥 고대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전시와 학술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고흥이 지닌 고대 문화유산에 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재)담양군문화재단, '쓰담길 야시장 월담' 5일 개막

다미담예술구, 한달간 문화·예술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정철원, 이하 재단)은 다가온 가을밤, 담양의 지난 시간과 기억을 품은 다미담 예술구에서 2025 담양 다미담예술구 '쓰담길 야시장 월담' 행사를 9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27일까지 매주 금, 토 총 8회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담양의 근현대 건축물이 복원된 이색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쓰담길 플라마켓 ▲지역농산물 반값장터 ▲버스킹 ▲기획전시 ▲쓰담길 스토리투어 ▲담양관다 '쓰담길' 포토존 ▲천 원 맥주 ▲스탬프투어 등 지역 상인과 예술인,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담양중학교, 수북중학교, 청소년문화의 집 동아리 등 담양 관내 중학생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대형 캔버스에 다미담예술구의 풍경이 실리



간으로 그려지는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 야간 경관조명 점등식, 담양 팬드 쓰담이와 함께하는 기념사진 촬영까지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 나은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